



'이달의 으뜸도성장'의 주인공들과

9월 전북도청 공영장에서 열린 7월 중 학이시습의 날 행사에 송하진 도지사가 이달의 으뜸도성장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심사 투명성 강화

전주시, 분양가심사위 건축학 등 자격요건 강화 구성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전주시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자, 한국감정원 임직원 등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해 구성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향후 전국 모든 자치단체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시 위원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시에서 이미 도입·운영해 온 것들이다.

실제, 시는 지난 2016년 제5대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과정부터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오고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 모집 과정부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한해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처럼, 시가 분양가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인 것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

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부터 사업주체와 인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될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 대도약 핵심프로젝트 추진 박차

도, 추진상황 보고회 열고 쟁점·향후 계획 논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등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 전북도가 10개 집중 사업 선정과 함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9일 도청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대도약 핵심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대도약 핵심프로젝트'는 도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 연초에 10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핵심프로젝트의 주요 추진상황과 쟁점 및 향후 계획에 중점을 뒀다. 주요 쟁점 사업으로는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예산면제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으며, 2020년 정부예산 확보 40억원을 추진중이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역시 에타면제 후 2020년 국가예산 127억여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상용차산업 경쟁력강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및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빛과 콘텐츠의 홀로그램 융복합산업 ▲안전보호 융복합첨단산업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악취 저감대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전북 대도약 핵심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정치권,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절차이행, 법령정비, 예산확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용적 충실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꽃피고 열매맺는 도정으로 전북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6면 - JB금융그룹 회장 취임 100일

'교수 비리'에 공식 사과

전북대,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독립적인 인권센터 설치·자문변호사 채용

인권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제정비 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최근 교수들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김동원 총장과 보직 교수들은 9일 진수당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의 잇단 비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부총장 등 보직 교수 20여명이 함께했다.

주요 내용은 ▲독립적인 인권센터 설치·자문변호사 채용 ▲인권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제정비 ▲성폭력·성희롱 방지 교육 확대 ▲연구구입사실 기능 및 인력 보강, 연구논문과 연구비 등 연구윤리에 대한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등이다.

먼저 인권센터에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학내 인권 문제와 성범죄 관련 상담 및 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문 변호사를 채용해 실질적인 피해자 법률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다양한 유형의 인권 피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제정비하고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기에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교수 임용 및 승진 시 성윤리와 연구윤리, 특권인식 지양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관련 교육을 포함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논문과 연구비 등에 대한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과 승진, 업적 평가에도 연구 윤리 부문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김동원 총장은 "최근 교수 비위 행

위가 잇달아 발생해 도민들에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쳤다"면서 "대학 최고 책임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총장은 "교수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과거 사건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관행과 적폐로부터 대학 제도와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은 총장 혼자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전북대가 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수 징계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위법 사실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선행 조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교수 윤리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추가피해가 예상되면 직위해제 등 선행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총장은 "전북대는 거점 국립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며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의식과 태도는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공공성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서 "우리 대학이 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 학부의 계기로 삼아 다 같이 노력한다면 알찬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현재 제2차 5차, 외국인 여교수 승용차, 무용대회 채점표 조작, 음주운전 사고, 논문 바꿔치기, 장학금 사기, 총장선거 개입 등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사건에 연루돼 올해 재관에 넘겨졌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전북대 교수는 모두 10여명에 달한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 평화동 '구 십자의원' 문화재 등록 예고

군산시 평화동(신영 1길 13)에 위치한 '군산 구 십자의원'이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 됐다.

9일 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군산 구 십자의원'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30일간의 등록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 십자의원은 일본식 가옥에 서양의 주거 공간이 절충된 형식으로

1936년 건립된 이후 불이흡입주식회사 사무실, 조선식산은행 사택, 육군 군 농회 사무실, 경성고무 사장 가옥으로 사용되는 등 근대문화유산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1980년대까지 소아과 전문병원으로 운영되어, 오늘날 군산시민들의 추억과 역사가 새겨져 있는 문화유산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